

통상임금 후폭풍...기아차 잔업·특근 중단

통상임금 각종 수당 기준돼 재정 부담...3분기 적자 불가피 中·美·내수 부진에 재고도 증가...다음주부터 생산량 하향

기아자동차에 몰아닥친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이 매섭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달 들어 특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 생산량 조정 등의 배경을 앞세웠지만, 이 보다는 지난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1심 선고의 영향이 근무 체계 변경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사측으로서는 부담을 그나마 줄이려면 아예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13년에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의 심야 근로를 크게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꾼 뒤,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25일부터 잔업이 없어지고 특근도 줄면 심야 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없어지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30분'으로 바뀐다.

2조가 일을 마치는 시각이 밤 12시 50분에서 12시 30분으로 조정되면서 심야 근로 시간이 20분 단축되는 셈이다.

판매 부진에 따른 기아차의 재고 증가도 잔업 중단 결정의 한 요인이 됐다. 지난 3월 이후 시작된 사드 여파와 치열한 경쟁 등이 겹쳐 재고가 늘었고, 재고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17만2674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미국 시장까지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겹친 '통상임금' 이슈가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결정에 맞을 바꿨다. 지난해 말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장부상 약 1조원에 이르는 손실 총당금을 쌓으면,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아차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업무 분야의 경우 신규인원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직무 자체 개선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도장 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관련 필수 근무자, 감시감독 근무자, 일부 생산 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직무 개선, 순환 근무제 도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6.50 (-5.70)	↑ 금리 (국고채 3년) 1.78% (+0.01)
↓ 코스닥 661.11 (-6.94)	↑ 환율 (USD) 1132.70원 (+4.40)

추석 차례비용 전년보다 하락

전통시장 21만7천원·대형유통점 30만9천원...3.4%·2.6% ↓

다가오는 추석명절 차례상 구입비용은 지난해보다 좀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을 비교하는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aT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관련 성수품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 21만7000원, 대형유통업체 30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4%,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품목 수는 전통시장은 15개 품목(전체 품목대비 54%), 대형유통업체는 16개 품목(64%)으로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시금치는 64.0%, 배추 28.4%, 밤 21.7% 등은 생육호전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두부와 녹두는 각각 25.6%, 5.5% 가격이 올랐다.

또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중인

선물세트 7개 품목(사과, 배, 쇠고기, 꽃감, 표고버섯, 잣, 굴비) 가격을 조사한 결과, 사과(5kg, 16과)는 대과(大果)비율이 전년보다 높고 최근 성출하기를 맞아 출하량 증가, 16.3% 저렴해졌다.

한우갈비(3kg)도 김영란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이 8% 하락했지만, 오히려 표고버섯(흑화고)은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에 20.3% 상승했고, 여확량이 줄어든 굴비(1.2kg·10마리)도 3.2%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잣도 8.2% 올랐다.

정부에서도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구매가 집중되는 추석 전 2주간(18~29일) 주요 10대 품목의 공급물량을 평소 대비 1.4배 확대공급을 추진 중이다.

배추·무는 추석 대책 기간 중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수급조절 물량을 평소 대비 1.4~1.9배 확대하고, 한우·돼지 등 축산물은 생산자단체와 함께 일일 공급물량을 확대 시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품목별 상세 정보 및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지급

국세청 1조6844억원...260만 가구 평균 78만원

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9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이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이상 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연남뉴스

광주은행, 시민과 광주FC 승리 기원 월드컵경기장서 '광주은행 Day'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광주FC 메인 스폰서로서 광주FC축구단의 발전과 승리를 기원하고 축구 관람의 보 조성을 위해 임직원과 주요 고객 그리고 광주시민 등 800여명이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광주FC 광주은행 Day'를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쳤다. <사진>

이날 광주은행 송중욱 부행장은 시총과 함께 임직원과 경기관람 및 치맥행사를 가졌고, 경기관람을 위해 방문한 광주 시민들에게는 식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8월 16일 지역 프로 축구 발전을 위해 광주FC에 4년간 14억원을 기탁하기로 했으며, 광주FC에 설립 자본금을 비롯해 올해 5억원을 포함하여 총 33억9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즐거운 노후를 위해 준비할 것은?

국민연금공단, 26일 5·18기념문화센터서 노후아카데미

즐거운 노후를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노후준비 아카데미'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대우)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060세대인 신중년과 함께하는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

건강관리협회, 광주광산체력인증센터, 광주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노후준비와 밀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제가 '국민연금 노후 락 패스터빌'인 만큼 노후준비 교육 외에도 노래 공연과 전문강사의 유익한 강의가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행복한 인생, 나의 노후를 디자인하

라'를 주제로 노후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노래감사 강형배 씨가 웃음과 힐링이 있는 노래 공연을 선사한다.

이어 의학 전문가인 홍해걸 박사가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로 건강한 노후에 대해 강연한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노후준비 아카데미 사전 행사로 국민연금 홍보관을 송정역시장 팝업스토어인 '누구나 가게'에서 국민연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노후준비 심층상담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아시아항공 모바일 앱

여권 스캐너·오토 체크인 도입

아시아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 내 '여권 스캐너' 기능과 국제선 '오토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권 스캐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권 사진면 판독률을 인식시켜 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국제선에 적용된 '오토 체크인' 서비스는 항공권 구매 후 연락처와 여권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출발 24시간 전에 탑승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김대성기자 bigkim@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